

강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산 0551-48-6264 (FAX: 0551-43-6496)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2-1221

'95 전국연수 및 대의원대회

김완자회장 포함 새임원진 인준

본 회의 94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평가, 반성하고 95년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전국연수

및 대의원대회가 지난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전주 고백교

회관에서 열렸다. '지방자치제 속에서의 학부모운동' (전북연합 박종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제속에서



- 고교 평준화 해제를 반대하는 5개 교육단체장 -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교육단체들은 고교 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인성교육의 파괴, 과열과외로 인한 사교육비의 부담가중 등 교육의 파행을 낳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교 평준화 해제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부모 운동은 공청회개최, 서명운동 등 각 지역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에 맞는 참여형태로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오성숙 전 정책실장의 '94년 사업평가'와 조명숙 부회장의 '95년 사업계획 기초발제'와 이들에 대한 조별토론을 벌였다. (3명 참조)

이밖에 이재천 전주지회장의 '고교평준화해제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교사의 질적 향상 등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가 있었다.

또한 마산지회의 '소모임'을 통한 활동과 전주지회의 '열린 자리', 서울지부 강서남부지회의 학부모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등 꾸준히 신입회원이 증가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는 지회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95년 사업을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출되었는데 전국임원에는 김완자 회장과 조명숙 부회장이 유임되었고, 감사에는 이종명(부산지회), 홍형택(동해지회), 조직국장에는 양민숙(이리지회), 서울지부 사무국장에 구명희씨가 선출, 인준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이미 각 지부와 지회별로 선출된 지부장 및 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 강서남부지회장(신효종), 중서부지회장(박재신), 관악동작서초지회장(오성숙), 인천지부장(이순신), 부산지부장(조명숙 부회장 겸임), 전주지회장(미정), 이리지회장(권숙희), 마산지회장(강정숙), 대구지부장(이경희), 동해지회장(홍형택 감사 겸임)

고교평준화 해제 반대표명

5개 교육단체 공동기자회견

김숙희 교육부장관이 밝힌 '고교평준화 해제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교육시민운동단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여성 민우회)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26일 세실레스 호텔에서 있었다.

이들 5개 단체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해제를 추진하는 교육당국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교입시부활반대 공동투쟁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

가기로 결정했다.

△고교입시부활반대 범국민연대회의 (가칭)를 구성한다. △고교입시부활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선전활동과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방자치제 후보자들에게 고교입시부활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공청회와 고교입시부활반대 공동기구를 발족시킨다.

한편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이와 같은 여론이 있자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 / 경 / 동 / 학

미나마따의 붉은바다

이 책의 출판매액 중 10%는 미나마따와 동일한 병인 '온산병' 연구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어린이 환경교육,
환경동화로 쉽게 다가갑시다.

아이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구요?
무조건 실천만 강요해서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동화의 주인공인 미나마따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간접한 감동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어린이 환경교육, 환경동화로 시작하세요...

이 책은 실제 미나마따 병을 30여 년간 치료한 의사가 직접 쓴 동화로 깨끗한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최명·홍경운·연향 사무총장

환경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 주는 녹색평화의 소망을 가득 담은 책입니다

정가 1,000원, 판매가 800원

우리교육 전화 730-1527(출판부)
730-1273(영업부)



사설

본고사가 가야할 방향

올해의 세칭 전기 일류대 입시에서는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높은 합격율을 보였다. 그 결과로 특수목적고에 가기위한 과외열풍이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한해 사교육비 규모가 17조 4천억원이라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 투자 분석에 관한 보고'는 국민 누구나 이미 체험적으로 느끼는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입시 위주의 과외학습만연, 학교교육의 불신및 이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따른 계층간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본고사가 당락의 주요변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본고사를 위한 고액과외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최한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내신·수능 및 본고사로 이루어지는 대학입시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하는 현실에서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병폐인 획일적 주입식 교육, 이로 인한 사지선다형, OX적 교육이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창의성과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현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주관식 출제와 논술고사로 된 본고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학입시는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은 본고사의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을만큼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본고사를 치른 37개의 모든 대학이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입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영·수 과목의 본고사를 치르거나, 일부과목의 난해도를 극히 높여서 고액과외를 부추기고 교육 정상화를 해친다는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결론적으로 말해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갖지 못하고 오지선다형 출제라는 한계를 가진 수능시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주관식 출제와 논술고사 중심의 본고사 폐지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교는 언제까지 본고사 준비를 학원에 미루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인가.

또한 본고사 도입에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당국도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시 형태를 개발하면서 지나친 고난도 출제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속에 사는 인간들이 겪어 가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바람직한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는 출제방식, 과외만으로는 절대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출제 방식의 개발이 시급하다.

작년 사교육비 17조 과외비만 5조8천억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발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3일 전국 7천 5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 1년간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사교육비는 17조4천6백40억원이며 이중 33.5%인 5조8천4백47억원이 초·중고생의 과외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초·중고생의 경우 가계지출액의 11~13%, 전문대 이상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15.2~17.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가계지출액 중 20~30% 이상이 사교육비로 지출되며 사교육비 지출은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읍면지역보다는 도시 △도시보다는 서울지역 △가계의 월평균 소득과 학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입학

중학교 배정원서가 반려돼 중학교 진학길이 막힐 뻔 했던 두밀분교 졸업생 신은정(12), 신재호(13)양은 1월 12일부터 상색국교에 등교, 보충수업을 받기로 해 진학을 할 수 있게 됐다.

두밀분교 학부모들은 1월 10일 학부모회의를 통해 본교에 등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상색국교에서는 두 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을 실시했으며 2월 14일 졸업식 전날까지 본교 학생들과 수업을

받게 된다.

두 학생의 상색국교 등교로 두밀분교 25명중 10명은 진학을 마쳤으며 나머지 15명은 두밀분교 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자체수업을 받고있다.

한편 두밀분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1월 24일 공판에서는 학부모의 증언이 있었으며, 2월 21일에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다.

교통 안전 시설 시범 설치

국민학교 주변 통학로에 어린이 위주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학교 주변 도로에 짙은 황색으로 어린이 보호구간을 정하는 한편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증설 및 확대, 신호등·경보등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갈현국교와 역삼국교 등 2개교에

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마산지회가 마산, 창원 지역의 학부모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올해부터 '마창지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학부모 만평

이숙자



초은일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빵점엄마 조은일의 화려한 작가일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한 아들 용걸이에 대한 아픔, 다섯 식구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콕지막한 문패, 무단결석한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이야기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조은일 씨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빵점엄마 백점일기: 출간 이후 평범한 주부에서 자녀교육의 기수로, 참교육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유명작가(?)로 변화하면서 겪은 방송출연, 강연, 글쓰기, 사람 만나기 등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겼다. 문학지나 일간지에 등단한 것이 아니라 주부다운 글쓰기로 세상에 알려진 조은일 씨의 작가경험은 주부들에게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신국판 / 200쪽
값 5,000원

부모를 돕는 책 시리즈

- 1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 2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가되려는사람들의모임 지음
- 3 외동아이가 잘 키우기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산·함희숙 지음
- 4 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한 글쓰기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 5 가족신문 만들기
우리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 6 아이와 장난감
놀면서 배우요
문미옥 지음 <근간>
- 7 부모-자녀 관계
자녀와 공감이 맞습니다
이혜련·김성운·이기연 지음 <근간>
- 8 영어 적기 교육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향 지음 <근간>

여성사

주소: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324-1885 / 팩스: 336-1639

'95 대의원대회 전국연수 보고

94년 사업평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 대통령을 표방하고, GNP대비 5%의 교육재정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영삼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에 희망을 걸면서 어느해보다도 교육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가 시작된 한 해였다.

본회는 94년 전국사업계획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학교현장개혁사업과 교육위원회 참관사업, 학부모회의 홍보 선전활동, 교육상담 및 상담에 대한 후속작업, 타단체와의 연대사업을 해 왔다.

특히 정책실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각 지부, 지회의 의견을 수렴,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사업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9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위원회 참관활동은 교육자치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조직의 역량에 맞고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실태조사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교사, 사회의 의식변화와 실천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전국사업으로 전개하려 하였으나 조직역량에 맞지않는 무리한 사업설정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본회의 위상을 높이고 선전한 '사교육비 문제'와 '교육자치제와 학부모운동'에 대한 공청회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타단체와의 연대사업은 교육개혁연대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경쟁력강화와 교육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했다. '두말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은 기금마련 콘서트를 열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한 가운데 본회는 전국의 회원들과 더불어 활발한 서명운동과 급식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었다.

한편 자체적인 조직평가를 내기도 했다.

95년의 사업은 94년에 대한 활동평가를 바탕으로 본회의 조직역량에 맞는 사업을 전국 각 지부 지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의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 참관사업과 고교평준화해제 반대운동, 지방자치제 참여, 타단체와의 연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었다.

교육위원회 참관사업

교육위원회 참관활동은 지난해 어느정도 압력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육문제에 대해 실질

95년 전국사업계획

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교육위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해 회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교육위원회 참관단도 대중적으로 모집, 발족한다.

고교평준화해제 반대운동

교육부의 고교평준화해제 정책은 내신성적으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비인간화교육이며 전인교육의 포기이다. 따라서 참교육 실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고교평준화 해제와 이에 따른 고교입시부활의 움직임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확한 조사

사업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하향평준화에 대한 반박자료로 과학적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또한 타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

지방자치제 선거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중사업으로 회원확충에 힘쓰고 지역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한다. 본회에서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 타후보의 경우에는 조직내부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범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원하며 교육적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내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압력을 행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므로 운영위원회의 성격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정부의 관련부처에 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을 세운다.

연대사업

교육개혁, 고교입시부활, 급식조례제정, 상시사업활동 등에 대한 연대사업을 전개하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대의원대회
9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할 임원진을 선출하고 있다.

회칙일부개정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 회칙은 모두 4장 39조와 부칙, 지부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는 고문제도가 마련되지 못했으나 고문제도가 첨부되면서 회칙이 일부 수정되었다.

었다.

〈개정전〉

제4절 자문위원회
제25조 (구성 및 임무)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취

지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2.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제반활동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개정후〉

제4절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25조 (구성 및 임무)
제1항 고문은 본회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전임회장 가운데서 추천되어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으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한다.
제2항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2.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제반활동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대보름 풍속 아세요?

대보름의 달맞이

정월대보름(음력 15일) 날 저녁 달이 동쪽에서 솟아오를 때면 사람들은 달맞이를 위해 뒷동산에 올라간다. 동쪽 하늘에서 대보름달이 솟을 때에 가지고 온 햇불을 땅에 쫓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제각기 기원을 한다. 이렇게 달에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부럼

보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 호도, 잣, 은행 등을 깨무는데 이를 '부럼'이라고 한다. 깨물때에는 '아이고 부스

럼아'하고 외치는데 이렇게 하면 1년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을뿐 아니라 이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귀밝이술

대보름날 이른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모두 술을 한잔씩 마시는데 이것을 귀밝이술이라 한다. 귀밝이술은 데우지 않고 차게 해서 마시며 일설에는 귀가 밝아질 뿐 아니라 1년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도 한다.

그래서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귀밝이술을 마신다.

오곡밥, 복쌈

이날은 다섯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지은 밥을 먹는데 곧 '오곡밥'이다. 그리고 세집 이상의 타성(他姓)집 밥을 먹어야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하고 평상시에는 하루 세번 먹는 밥을 이날은 아홉번 먹어야 좋다고 해서 툼툼히 여러번 먹는다.

또 이날에는 밥을 김이나 취에 싸서 먹는데 이것을 '복쌈'이라고 부른다. 복쌈은 여러개를 만들어 그릇에 논적(露積) 쌓듯이 높이 쌓아서 성주님께 올린 다음에 먹으면 복이 있다고도 전한다.

다리밟기

대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1년동안 다리의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며, 다리 열들을 밟으면 1년 열두달 동안 건강한 다리를 지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액을 면한다는데서 유래된 행사이다.

양반들은 상민과 함께 어울리기를 꺼려서 아주 앞당겨 14일에 다리를 밟았으니 이것을 '양반 다리밟기'라 했고 부녀자들은 하루 늦춰 16일에 밟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보름에는 낫다리놀이, 사자놀이, 쥐불놀이, 햇불싸움, 줄다리기, 석전, 고싸움, 차전놀이, 짚신밟기 등의 놀이가 있다.

대보름에 얹힌 우리 말 유래

개보름 쇠듯한다:잘먹고 지낼 때에 도리어 잘 먹지 못하

고 지냄

「경도지(京都志)」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 대보름에 개에게 먹이를 주면 여름에 파리가 훨씬 아니라고 개가 여윈다는 속설 때문에 이날은 개를 굶기는 풍속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민속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말고 실제적인 이유는 달이 있었다고 한다.

즉 옛날 사람들은 달과 개는 상극이라 개가 달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달은 음(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에 여자들이 달을 쳐다보며 달의 기운을 몸에 받아야 하는데 이날 개에게 음식을 먹이면 개가 힘이 나서 보음(補陰)에 필요한 달을 먹는다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해제 정책 갈팡질팡

설문조사 결과 평준화 유지 보완 위해

김숙희 교육부 장관이 고교 평준화해제를 선언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매우 분분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 제도를 해제해야 한다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언론에 다루어 그 방안들이 보도됨으로써 직접 당사자들인 학부모들은 무척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교육 당국자들마저도 평준화 해제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자문위원회는 「97년부터 사립고 중심의 고교평준화 부분 해제」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와는 상반된다는듯이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최근 「98년부터 서울시내 20개 고교 평준화 해제 방침과 함께 다른 시도도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혀 어느 것이 진정한 방침인지 분명치 않은 가운데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군제를 도입하고 그 범위안에서 자유지원토

록 하는 방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6일 교육부 산하기관인 교육개발원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교육부의 평준화 해제 정책에 설득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전국 61개 인문계고교학생 2천2백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92년 고입연합고사성적과 94년 고3 모의고사성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변화와 별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지역보다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함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전국의 학부모, 교사, 교육정책관련자 등 2천7백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준화를 유지하자가 57.4%, 폐지 31.8%, 아무래도 좋다 10.8%로 나타났고 서

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대도시의 경우도 평준화 찬성이 60.2%~67.3%로 평준화 유지에 대한 지지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해 말, 이미 지역 여론이 평준화해제를 원한다고 하여 평준화 해제 방침을 정한 인천시의 경우 58.3%가 평준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현상이다.

또 상류계층(평준화찬성 51.9%, 평준화폐지 40.4%)일수록 평준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관료 등 교육정책관련자들은 평준화가 해제돼야 한다(평준화찬성 4.4%, 평준화폐지 50.3%, 아무래도 좋다 45.4%)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행정이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는 괴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고교평준화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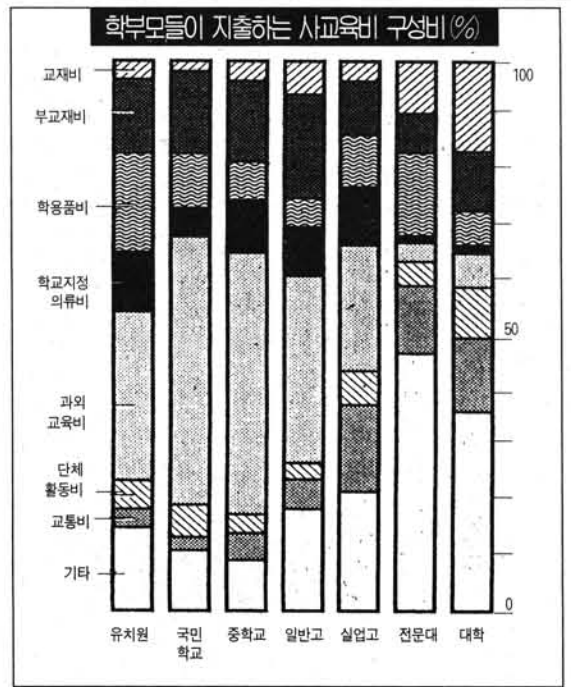
교육개발원은 아울러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교평준화 해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선발 및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희망 사립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한다. △현행 학군제 유지 아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한다는 개선 방안도 내놓고 있다.

반면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여러 교육단체들은 고교평준화를 해제할 경우 인성교육을 파괴할 뿐 아니라 경쟁입시를 부

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교육행정의 파행적 운영을 낳게될 뿐 아니라 과열과외로 인한 사교육비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봉호기자〉



교육용어

사교육비란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중 학교에 내지않는 돈이 사교육비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이내는 수업료 등록금등은 공교육비에 포함된다. 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의 범위는 14개로 과외관련경비인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와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 지정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등)로 구성돼 있다.

〈시도별 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경기	강원
평준화 찬성	60.2	61.6	67.3	64.7	58.3	47.4	50.8	67.5
평준화 폐지	31.8	29.8	24.4	27.1	33.3	47.4	40.0	25.0
아무래도 좋다	8.0	8.6	8.3	8.2	8.3	5.3	9.2	7.5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평준화 찬성	55.2	44.6	42.9	70.3	51.0	53.02	60.0	
평준화 폐지	39.7	46.4	49.0	10.8	40.8	38.0	30.8	
아무래도 좋다	5.2	8.9	8.2	18.9	8.2	8.9	8.4	

◆ 교육시민운동 단체

고교 평준화 해제 반대 성명

우리 사회는 지금 세계화라는 허울좋은 이름 아래 사회전반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가뜰이나 무의미한 극한경쟁에 시달리는 교육에 이를 부과한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18일 교육부 장관이 밝힌 이른바 '고교 평준화 해제방안'이다. 이제까지 20년간 실시되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세계화에 대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극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부분적, 점차적이지만 고교입학에 경쟁을 통한 선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교 평준화 해제, 아니 실제로는 '고교입시 부활'정책에 대하여 우리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과 함께 그 반대여론을 분명히 밝힌다.

우선 세계화란 단순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폭넓은 생태주의적인 세계관, 다른 문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성과 자율성의 실현에서 오는 것이다. 세계화는 기존의 극한경쟁을 통한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인간 교육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교육의 하향 평준화 문제는 다만 일부 평준화 해제론자들의 주장일 뿐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또 학력에 따라 서열화된 중등 교육 체제가 수월성을 제고해 준다는 근거 또한 없다. 오히려 평준화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평등성 확보, 전인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 입시문제 완화, 지역 및 계층 격차 축소 등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사학의 자율성이나 학부모 학교 선택권은 늘 그렇듯이 교육 자체의 자율성이나 학부모의 교육주권의 확보를 전제로 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입시부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 우리 교육 전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고교입시 부활정책은 작은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다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마저 그르칠 수 있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가뜰이나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쟁선발을 통한 입시 부활될 경우 그 부작용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평준화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중학교의 입시학원화, 과열과외, 고등학교의 서열화에 따른 일류병의 재발, 입시부담에 시달리는 청소년 문제등 그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부작용은 지금까지 교육의 주권자이며 조령모개의 교육정책에 휘둘려온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칠 것이다. 학생들은 중학교, 아니 국민학교서부터 입시지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월성제고라는 기술주의적인 발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금 뿌리째 뒤흔들고 입시지옥에 시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거듭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고교입시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대학입시 자체의 개혁 그리고 교육전체의 개혁의 틀 안에서 획일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평준화 운용을 다원화 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해결의 근본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나아가서 교육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철학을 정립하며, 그 형식과 내용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인간의 개성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의 다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은 차제에 이런 모든 논의 속에서 우리 교육의 주권자이며 당사자들인 시민,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학교 선택권을 입시라는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행사하기를 바라는 학부모,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그리고 당장 입시교육에 매달리게 될 교사들의 의견은 어떤지 처음부터 수렴해야 한다. 행여 다가올 진정한 자치시대를 예비하는 교육개혁이라는 범국민적 과제를 구태의연한 권의주의적 행태로 교육주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고교입시부활'이라는 기술적인 단견에 따른 개혁안보다는 우리 교육을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우리 사회의 앞날을 열기위한 예비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1994년 1월 26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이 글은 위의 5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입니다〉

◇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맞아서

학교는 즐겁고 선생님은 좋은 사람

3월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예비소집일을 전후하여 학교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이때 어머니나 주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 지을 수도 있다. 만 6세가 되는 어린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몸에 배어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단체생활을 시작하기전 부모가 특별히 지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입학직전의 어린이들에게 공통되는 특징은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다. 아이들은 주변에서 들은 것과 짐작하는 것 외에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입학하게 될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든 그대로 믿고 끝이 듣는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무서운 분이다' '학교는 지저분한 곳이다' '선생님께 꾸지람 듣는다'

'글자를 배우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 창피하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말을 못하면 학교에 갈 수 없다' 등의 말은 아이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므로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비소집일에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는 복도가 지저분하다든가, 화장실의 냄새가 지독하다든 등의 학교시설에 대한 평을 아이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혹시 아이가 와서 "화장실이 왜 이리 지저분 하지?" 하더라도 "여럿이 함께 사용하니까 그렇지 뭐"라고 가볍게 대꾸하는 것이 좋다.

예비소집일에서 처음 만난 선생님의 모습은 어린이의 머리속에 오래 기억된다. 이때 부모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애정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아이가 느끼도록 해 주

는것이 바람직하다. 예비소집일에 다녀온 다음에는 학교는 과연 좋은 곳이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소집일에 가기전 아이에게 학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유치원 보다는 운동장이 넓어서 뛰어 놀기가 참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아이를 긍정적으로 감화시키면 어린이는 긍정적으로 자라며 기대에 찬 입학준비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아담만 들어 공포심을 갖게 된 어린이는 소심하고 주저주저하며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된다. 예비소집일에 다녀온 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글자 몇자 더 가르치는 것보다 단체 생활에 적응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왔다가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 갈수 있도록 학교와 부모 양쪽 모두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한다.

「엄마, 공부 잘하게 키워주세요」에서 발췌

교육 모니터 모임

— 'TV바로 보기'에 관하여—

올 겨울이 유난히 춥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겨울 방학동안 추위를 핑계로 내내 TV앞에서 보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권장할 만한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부모들이 TV바로보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했으면 한다.

95년 <말>지 2월호에 게재된 대중문화 평론가이며 학부모회 제2기 교육모니터 교실에서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강의해 주신 김창남 박사의 TV비평글 「김창남 TV바로보기」가 우리들의 시청습관에 큰 도움이 되리란 생각이 들어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소개해 보겠다.

-우리의 가족관계, 가족문화는 TV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즉 TV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된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 수는 없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이야 한다. 딱두꺼비같은 복덩이는 못 만들지만 막돼먹은 재앙덩어리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듯이 나의 것으로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리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TV바로보기'는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사랑의 길이다. TV바로보기, 혹은 TV사랑하기를 위한 첫 번째 지침은 TV에 관해 가능한 한 자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 때로는 자기 자신과 TV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TV에 관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TV앞에 멍청히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늘 '왜?'라고 하는 의문부호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왜' 재미있어 하는 거지? 저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얼핏 골치아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나'를 키움으로써 우리는 뜻밖에도 또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실천을 통해 전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TV를 시청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선별하여 시청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했으면 한다.

〈오말복 정리〉

☐ 박물관 순례 - (1)철도 박물관

우리 철도 역사 90년 한 눈에

우리는 오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 서양화되고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전문 박물관을 소개하여 부모는 물론 자녀에게도 전통문화의 산교육장으로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이란을 마련했다.

철마가 우리 앞에 등장한지 90여년이 흘렀다.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서울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이 개통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철도산업의 발달은 그 나라의 산업경제에 직결되며, 교통수단으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철도 박물관은 1981년에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988년 1월 26일 개관되었다.

이곳은 부곡역에 있으며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기차나 전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부곡역에는 철도 전문대학과 교육장 및 박물관이 있어서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90여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대지 6173평의 2개층의 전시실이 있고 옥외전시장도 있다. 전시실 1층에는 모형 파노라마실, 역사실이 있고 2층에는 시청각실과 기차전시실이 있다. 옥외 전시장에는 각종 열차가 진열되어 있고 무엇보다 300m 가량의 협궤열차가 운행되고 있는것이 흥미로운 볼거리다.

전시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1층 전시실에는 철도 창설이후에서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철도개통연대표, 철도 창설에 공헌한 인물들의 초상화, 운행속도 변천과정들이 있다. 또한 역사실에는 기차의 축소모형들이 있는데 경인선 개통 당시의 모갈 탱크, 기관차와 목재기차, 세계 최초 운행된 페니타렌호 증기 기관차, 경부선 운행의 탄환형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실 중앙에는 6·25 사변 때 적치하에 있던 대전차 미군장비를 구하기 위해 몰고 들어 갔던, 미카 3-219호 증기기관차를 1/2로 축소해 제작해 놓은 것이 있다. 이 기관차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기적 소리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

모형 철도 파노라마실은 서울의 중심건물들을 배경으로 하여 한강과 터널을 통해 다리는 환상의 열차 20개를 보여준다. 2층전시실은 과학 기술관으로 전

기, 통신 신호와 승차권을 인쇄하던 인쇄기, 절단기, 기념승차권, 관광기념 스탬프, 기념우표, 운행표 등과 승무원의 휴대품이 전시되어 있다.

시청각실에는 세계 최고속열차로 알려진 프랑스의 TGV 열차의 대형사진과 세계각국의 초고속 열차의 모형을 진열해 놓고 있다. 이 모형을 보면서 세계 각국의 열차와 우리나라 열차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시실을 관람하고 옥외 전시장으로 나오면 지나간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대형기차가 있으며, 예전의 증기기관차에서부터 현재에도 운행되고 있는 비둘기호와 통일호가 레일 위에 달려 갈 듯이 서 있다. 전직 대통령 기차인 박정희 대통령의 귀빈객차와 이승만 대통령의 붉은색 전용차도 함께 진열되어 있어 사람들의 눈을 끌고 있다.

이 철도 박물관은 철도 역사를 통해 시대변천 과정을 보여주며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성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시속 몇백 킬로미터의 초고속 열차가 달리게 되며 이제 전국은 일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 날이 올 것이다.

〈김해순 기자〉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겨울캠프 민들레 학교를 가다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

“길가에 민들레는 노란저고리
 첫돌맞이 우리아기도 노란 저고리...”
 라는 동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난, 민들레학교라는 이름이 너무예뻐요.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민들레 학교의 겨울 캠프가 어떻게?하는 궁금함에 오랫동안 나만의 외출을 시도해 보았답니다.
 다형이 엄마는 운전하느라 힘든데 까박까박 돌아가며 도착한 상주의 회강마을 넓게 퍼진 모래밭이 가슴가득 우리를 안아주었어요.
 성당 가득히 흙어진 아이들의 흔적(모듬 안내관, 일정표, 썰매 만들었던 나무, 망치, 못등) 한방 가득 소복히 모여앉아 저녁 식사 준비에 열중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하고는 엄마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안 반가운가? 기분이 묘하네요.
 신발도 젖어 있었고 옷도 젖었는데 말할 생각도 않고 입고 있으면 마른대요. 그래도 춥지 않고 괜찮다고하니...
 엄마는 그제야인데 (전적으로 아이들의 문제죠). 팬시리 조금은 섭섭했답니다.
 어쩌나? 다음날 일이 김치 담그기였는데, 세상에 마른배추에 소금을 척척 뿌리네요. 절여질까?

선생님도 만나고 모듬언니도 만나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펴보았죠. 그중 별채에 뚝 떨어진 흙방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그곳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특급화장실이나 휴지통이 있고 어설픈 널 뛰기도 있었어요.
 낮에는 동네어른들께 떡을 나누어 드리고 훈훈한 옛날 이야기도 들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듬별로 저녁도 해먹고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며 뛰어놀기도 하고, 굴, 생고구마, 배추뿌리로 밤참도 먹고...
 어떤 방에서는 머리띠 만드느라 손뜨개질에 바쁘신 보리 엄마, 다형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눈망울이 초롱한 아이들, 창 밖에는 조청을 달아시는 동네분들의 넉넉한 웃음소리...
 이렇게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뿌연 물안개와 붉은 가로등아래 간간히 날리는 흰눈
 회강마을의 저녁은 정말이지 너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음날 아이들은 흰눈을 맞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모듬언니들 정말 고맙습니다. 팬참은 엄마 될게요.”

〈대구지회 김영미〉

“아하, 바로 우리집 이야기를 써 놓은것 같구나!”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
 학민사에서 나온 『여보, 우리 이렇게 해요』이다.
 지난해에는 유독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를 여러군데에서 있어왔다. 그 중의 하나로 여성민우회에서 바른가정, 건강사회를 위한 부부 24계명을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만들어 내었고, 그 24계명의 하나 하나를 주제로 회원들과 그 남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재미있게 책으로 엮어 낸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모두 48명이다.
 이 책은 학자나 활동가들이 이론을 중심으로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주부들과 그 남편들의 이야기이다. 주부들은 자신들의 남편이나 주위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 글을 통해 비로소 하고 있으며, 남편들 역시 아내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단점을 공개하여 흥(?)을 보기도 한다.
 24계명을 하나 하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글들 속에는 주부가 홀로서는 이

야기, 자녀를 기르는 이야기, 부부간의 문제, 본가와 처가의 관계, 환경문제를 보는 시가, 투표하는 자세, TV보는 태도, 남편소외의 문제 등 우리 생활과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솔직하고 꾸밈없이 마치 이웃집 사람과 수다(?)를 떨듯이 펼쳐져 있다.
 대개 주부들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책이외에는 거의 책을 사지 않는다. 가끔 책을 읽더라도 베스트셀러라고 나와있는 책들이 고작이다. (주부들을 지나치게 평가절하?) 더우기 사회문제가 어떻고 삶의 바른태도가 어찌고 하는 책들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들여다 볼 생각도 안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 사회문제를 다양하게 끄집어 내면서도, 골치아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벼운 형식으로 다루고 있기때문에 가볍게 읽어 볼만한 책이다.
 더우기 바른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양해경 중서부지회〉

공룡대전을 보고...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공룡대전을 보러갔다.
 TV에서 계속 선전하고 얼마 전 ‘주라기 공원’비디오도 본 터라 공룡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다.
 주최하는 곳이 KBS이고 후원하는 곳은 문화 체육부, 환경처, 과학기술처 등등... 우리나라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보이는 곳인 KOEX 한국 종합전시장이라 아마 볼만한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거대한 공룡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상상력까지 발동했다.
 방학 중이라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했으나 막상가보니 정말 많이 왔다.
 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장권 판매소를 물어 물어서 찾았고 막상 구입하려하니 너무나 비싸서 깜짝 놀랐다. 성인은 12000원, 아이는 6000원, 우리 4가족이면... 좋다! 뭐, 이왕 아이들을 위한 것, 그만큼 충족되면 부모로서 보람도 되겠지.
 처음 그 안에 들어서자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꾸 빨리 들어가라고 성화다. 안은 메워 터질것 같은데 어서 들어가라고 하며 완전히 시장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 같다. 어떻게 해서 ‘정글 터널’을 지났는지, 여기가 대공룡 전시관인지, 겨우 이것이 360° 씨클비전이라고 하는것인지, 영화 ‘주라기공원’에서 보는 동일한 세트구성은 기

가 막혀서 코미디 보는 기분까지 들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리엑터’라는 가상체험 영화관은 다시 줄서 기다려 입장권을 사서 겨우 6~7분 보고 나온다.
 아이들은 너무 어둡고 어른들에 치여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른과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좀더 치밀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TV나 비디오, 영화 책에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너무나 세련된 아이들에게- 좀 큰 장난감 몇개 세워놓고 방학내내 TV나 신문에서 떠돌아 대다니...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과학기술이 이것밖에 안되나. 아니면 아이들을 너무 과소 평가 한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상술은 아이들에게 실망과 상상력마저 감소시키고 말았다.

〈김정실 인천광역시 북구〉

보람있었던 겨울방학 독서방 이야기



26일 독서방 종강파티 때.

올 겨울방학 1월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는 학부모회 사무실이 북적거렸다. 서울지부 강서남부지회에서 실시하는 독서방과 종이접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책과 친해지게 되는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책을 읽음으로써 독후감을 강요받는 아이들은 책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점점 더 책을 멀리 하려 하지만 보고싶은 책을 읽고 확인자와 일대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감과 발표력을 기르게 된다고 한다.
 주사위 게임과 색칠하기, 낚시놀이 등 게임도 하고 상도 타면서 책을 읽은

것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게 되는 것에 아이들은 만족하고 스스로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특히 아직 글을 못 읽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책을 읽어 줌으로써 가족관계도 좋아진다고 한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하려하고 부모님들로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장해 줄 수 있는 기회로 매우 만족해 했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신효종 지회장은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인데 총 40명이 참가하여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비회원으로도 참가했던 학부모들이 회원으로 되어 회원확보에도 도움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국민학교 저학년때 책읽는 습관을 습득하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기 쓰기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여 이야기했다.
 책을 25권 이상 읽은 어린이에게 독자 증명서를 주었는데 26일 종강때는 참가자 40명중 19명이 다독자증명서를 받았다.
 이날 91권의 책으로 가장 많은책을 읽은 박소영어린이의 아버지는 “좋은 아빠 되기가 이렇게 힘들줄 몰랐다.”며 활짝 웃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각 지회마다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며 강서남부지회는 앞으로 방학중에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김은주 기자〉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⑥

칭찬이나 설교도 걸림돌 될 수 있어

지난번에는 자녀가 문제를 호소해 올 때 부모의 부적절한 태도로 아이의 말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 놓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이에게 부모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화는 끊기게 되고 맙니다. 아이의 말문을 닫게 하는 부모의 태도를 P.E.T.에서는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전번호에는 이 걸림돌 열다섯 가지 중에 일곱개를 말씀 드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해 계속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욕설, 조롱

“이 바보야,” “병신 같이...” 등 흔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심코 욕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욕설이나 조롱을 듣고 자라게 되면 자녀는 자기비하의 감정을 갖게 되고 자신은 사랑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 엄마, 선주머니를 학교에서 잃어버렸어요.
엄마: 이 멍충아, 넌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9. 분석, 진단

“무엇이 잘못된건가 하면...” 등의 말은 자녀가 궁지에 몰리고, 노출 되거나 불신 당한다고 느끼게 되어 방어 하게 되고 말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아이: 엄마, 나는 산수가 정말 싫어요.

엄마: 니가 산수를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10. 동정, 위로

“걱정 하지마” “앞으론 나아질꺼야” 무턱대고 동정하고 위로 하면서 자녀가 이해받지 못한다. 느끼게 되고 적개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이: 이번 학년 말 시험을

망쳤어요.

엄마: 괜찮아, 다음엔 잘 할꺼야.

아이: (흥, 말이야 쉽지.)

11. 캐묻기와 심문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등, 마치 피의자를 심문하는 듯한 말은 아이가 대충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텔레비나 보자.

13. 과거 캐묻기

“넌 지난번에도 그랬잖니?” 등 지금의 상황을 과거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이가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아이: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가서 야단 맞았어요.

엄마: 넌 지난 주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니? 혼 좀 나봐야 돼.

14. 같은 말 반복

이른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아무리 해 봐도 아이의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자녀와의 사이만 멀어집니다.

15. 비교하기

“형 좀 보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철수는 이번에도 일등했다더라” 등의 말은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남에게 비교되는 것 만큼 불쾌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형제간의 비교는 절대로 삼가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녀가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경청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걸림돌을 사용하게 되면 감정의 격화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따라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걸림돌 사용으로 인해 자녀는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악화 되고 상호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 열다섯가지 걸림돌 중 설교나 훈시, 동정, 위로, 칭찬, 해결법제시 등은 언제나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이도 부모의 말을 허

하고 자기 문제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아이: 엄마, 석철이 나쁜 자식이야.

엄마: 너 싸웠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웠니, 얼마나 얻어 맞았니?

12. 화제 바꾸기, 빈정거림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잊어버려...” 등은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보다는 회피하려는 성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가치 없거나 하찮은 거라고 생각 되게 해 문제 해결을 방해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아이: 지난 번 수학 시험 잘 볼 수 있었는데..

엄마: 자꾸 생각하면 뭐하니.



미래의 유망직업 (7)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단 순한 놀이나 오락이 아니라 삶의 재창조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락차원을 뛰어넘어 재충전이라는 뜻을 가진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는 사람이 바로 레크리에이션지도자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엮기 위해 모임의 성격, 하는 일, 참가 인원수, 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 준비하면서 행사를 기획한다.

우리나라에서 레크리에이션은 1960년에 처음으로 공식기관인 레크리에이션협회가 발족, 그후 YMCA, 흥사단 등 사회기관에서 전과를 담당했다.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전문적으로 건전놀이를 지도해줄 양질의 지도자들이 요구되었다.

최근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업레크리에이션, 장애자들이 자기들에게 알맞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애자 레크리에이션, 환자들의 빠른 치유를 돕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점차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의 활동형태는 다음과 같이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레크리에이션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YMCA, 흥사단 등 공공단체회원으로 활동한다. 협회에서는 약 9천여명의 수료자들을 배출했는데 이들이 회원으로 남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일을 의뢰한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심탄화하게 받아들일 마음에 자 세가 되어 있으면 같은 동정이 나 설교라도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부모의 설교나 훈시라도 이것을 받아드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아

들째, 사실 레크리에이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협회에서 자격증을 받거나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레크리에이션2급 지도자 자격증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면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 YMCA의 강습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1개월 동안 주3회, 하루 2시간30분의 강의를 하는데 과정을 수료하면 1년 동안 연수에 들어간다.

또 대학의 사회체육과나 레크리에이션과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서일전문대, 명지실업전문대, 신학대의 몇곳에 레크리에이션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즐거움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며 프로그램 계획을 연출할 수 있는 재치,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풍부한 상식이 필요하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순발력있게 대응하는 임기응변, 많은 사람을 통제하면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거듭되는 율동을 지도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직업은 의뢰받은 일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므로 수입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일을 맡더라도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현재 레크리에이션계에서 중견으로 활동하는 전임지도자의 경우 시간당 5~10만원 을 받는다.

요즘은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웬만한 단체행사에서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배명희 기자〉

이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반영적 경청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정진 P.E.T.강사〉

인터뷰

마산지회

강정숙 지회장을 찾아



참교육 학부모회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주에서 올 한 해동안 마산지회를 이끌어갈 지회장 강정숙씨를 만났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지게되

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 보자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산지회의 창립일원으로 학부모회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1989년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우리 마산지회는 참교육을 염원하는 일반 학부모들의 의지를 모아 거리거리에서 ‘돈봉투 없애기 운동’ 서명작업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도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대부분 학부모들이 교육을 학

교에 일임한 채 가족이기주의에 빠져 그저 돈만 잘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어른들이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내올 수 있다는 것이 강정숙씨의 지론이다.

“학부모회 활동의 근거지가 서울이다보니 지방활동에는 어

“어른들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건강해요”

려움이 많아요. 정부의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진이 부족하고 지방의 특성상 보수성향이 강해요. 그렇지만 회원들간의 살뜰한 정이 깊어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돈독합니다.”

창립 초기에 활동을 하다가 생활에 묻혀 학부모회의 일을 많이 거들지 못했었는데 지회장으로 일하는 동안은 마산지회가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각오가 대단하다.

마산지회의 올해 중점사업은, 전국의 다른 지회 상황이 다르

므로 굳건한 임원진의 집행력을 무기삼아 교육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여러 민주단체와 연대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교복 물려 입히기 운동’을 3월까지 추진하는 것, 현재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입시부활 반대투쟁’, 5월 어린이날 행사, 6월 지자제선거와 함께 ‘청소년 역사기행’, 8월 방학중에는 ‘어린이교실’ 실시 등 행사일정이 매우 빽빽하다.

강정숙씨는 해마다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놀이 문화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어린이다운 놀이문화를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일 욕심도 많다.

“아이들이나 남편이 집안일을 나누어 해주기 때문에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기까지 해요. 다만 나 자신을 되돌아 볼 때 과연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하고 싶어요.”라고 겸손해 하며 말을 맺었다. 〈김은주 기자〉

학부모, 자녀 위한 2월 행사 안내

월례회

서울지부

◆관악 동작 서초지회

·시간:2월15일 10시
·장소:청소년 학회 세미나실(4층)
·주제:입시 총회 및 춘지문제 토론

◆강서남부 지회

·시간:2월16일 10시30분~12시
·장소: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사무실
·주제:‘새로운 세계와 창의력 교육’

◆중서부 지회

·시간:2월21일 10시30분
·장소: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 사무실
·주제:고교 입시부활에 대한 토론회

대구지부

·시간:2월10일 10시
·장소:대의원대회보고 및 95년 사업설명회
·문의: (053) 781-3611
·* M.T가 있을 예정임(2월 마지막주)

낸 주부들의 이야기한마당”
2월16일 10시 “학부모신문을 함께 읽고 생각해봅시다.”
2월23일 “재활용품을 이용한 수납상자 만들기”
·문의: (0662) 84-5116

전주지회

·시간:2월8일 교육행정 용어 교육
2월15일 ‘열린자리’ 분리수거통 만들기
2월22일 입시부활에 대한 토론회 (매주10시)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대상:학부모 누구나
·문의: (0652) 231-6242
·* 2월말 산업시찰 예정 (한솔제지)

서울지부

제5기 학부모교실
·시간:2월23일 1시~5시
·장소:삼성출판사 세미나실
·주제:아이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강사:윤인자)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 및 사례발표(박재신 중서부지회장, 이진자 관동총무)
·회비:5,000(회원 3,000)
·문의:634-6508

지회소식

인천지부

예비학부모교실
·장소:부평4동 성당
·시간:2월21일 10시30분
·대상:국민학교, 중학교 예비학부모
·문의:전교조 인천지부 (032) 525-8342
인천지부장 자택 (032) 572-3410

고교입시부활 반대 가두 홍보
·시간:2월25일 4시
·장소:부평역 광장

부산지부

알짜배기 선생님과 알짜배기 학생들이 함께하는 알짜학교
·시간:2월22일~2월25일

·대상:중1~중3
·내용:교과영역(수리·논리, 생활과학, 국어, 가치교육) 동아리(놀이, 음악, 미술)
·문의: (051) 247-1795

이리지회

열린자리
·시간:2월8일 10시30분
2월22일 10시30분
국민학교 예비학부모 교실(강사:나영성)
2월23일 10시30분
중학교 예비학부모교실(강사:윤양금)
·문의: (0653) 856-0340

여천지회

·시간:2월9일 10시 “명절을 지

가족이 함께 볼만한 비디오

■마이키 이야기3



감독:롬 로페레브스키
주연:존 트래볼타, 커스티 엘리
마이키네 집에서 크리스마스 때 벌어졌던 작은 소동을 훈훈한 사랑을 담아 그린 가

족 코미디. 꼬마 마이키의 눈으로 보던 전편들과 달리 강아지가 내레이션을 한다. 강아지 바우의 목소리는 배우 대니 드비토. 마이키와 줄리 남매는 개를 몹시 갖고 싶어하지만 엄마 물리는 집이 좁으니 다음에 키우자고 한다. 마이키는 백화점 산타에게 강아지를 소원으로 빌지만 이뤄지지 않아 상심한다.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 개를 사러갔다가 처형 직전의 떠돌이 강아지 바우를 데려온다.

■프리 윌리



감독:사이먼 윈서
주연:제이슨 제임스 리처, 로디 페티
범고래와 어린 소년간의 감동적 사랑을 그린 가족 영화. 엄마에게조차 버림받은 고아소년 제시는 거리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보호시설에 보내진후 양부모를 얻는다. 하지만 굳어버린 제시의 가슴은 양부모들의 사랑에도 움직일줄 모른다. 그런 어느날 제시는 수족관에 낙서를 한 벌로 여름방학 동안 수족관 청소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조련사들의 말을 듣지 않아 골치를 썩이는 범고래 윌리와 만난다.

교육위원회 참관단 모집

저희 학부모회에서는 전국 각지역별로 매달 열리는 교육위원회에 참가하여 교육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시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압력과 감시기능을 위한 교육위원회 참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실질적인 압력단체로 교육환경개선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634-6508

★ 각권 값 4,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산하어린이가 한국 아동문학의 큰 맥을 잇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권해주십시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71권은 그동안 서울 YMCA · 서울 YWCA · 문화체육부 · 어린이도서연구회 · 국립중앙도서관 · 마산 YWCA · 좋은 책 만들기운동 연합회 · 창원 YWCA · 군산 YMCA · 어린이 문화 진흥회 · 마산 YWCA · 부산 ·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있는 책입니다.

▶ 생애이야기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차돌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15. 나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지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하는 해 해 하도 한 교실 어린이
29. 통일하는 참 쉽다 동시 · 동화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소
35. 날마다 크는 아이 어린이 문학교육연구소
36. 민요기행 신정원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과학이야기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정영
62.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64. 악착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명
- ▶ 역사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성
3. 4. 5. 임궏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영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나래

▶ 인문이야기

50. 홍이로온 국보 여행 배봉기
52. 53. 꼬마단군 1·2 정우상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성민
68. 열썬구 국악이야기 들어 보세 김태권
- ▶ 인문이야기
7. 전태일 황기현
33. 운동주 정희규
49. 신채호 김서정
- ▶ 창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성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동물이야기

8. 어우어 어우어 뭐 하니 김복
9.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성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현
19. 팔코마이 이상권
20.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21. 상계동 아이들 노정원
22. 따뜻한 사람 박성규
23. 키다리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용, 이현수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 동수의 새변제 비밀 유순하

27. 아기 장수 조호성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30. 삼마를 아이들 신종래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다고 껌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침지의 애주공 이재복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신정원

▶ 사장이 된 풀벌레장수 박성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덕
57.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65. 피리 부는 소년 이수홍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69. 느름곰 아이들 임진태
70. 71. 큰소나무 1·2 장성규

도서출판 산하

121-012 서울 마포구 아현2동 338-10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